신안서 세계 최대 직경 모새나무 발견

중부지역 일대서 자생 군락지
수고 6m·근부직경 68㎝ 달해
세계적 가치 보호종 지정 등 나서

신안에서 발견된 모새나무.

세계 최대 직경(지름)을 자랑하는 모새나무 군락지가 신안군에서 발견돼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신안군은 최근 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에서 '산림생명자원 모새나무 수집·보존 및 특성평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신안군 중부지역 일대에서 모새나무 자생 군락지를 발견했다고 17일 밝혔다.

집단 군락지에 발견된 모새나무는 최고 크기가 수고 6m, 근부직경 68㎝(누적 근원경 64.46㎝)에 달했다.

모새나무는 정금나무, 들쭉나무와 함께 우리나라 토종 블루베리로 알려져 있다. 모새나무의 검은색 열매 추출물은 피부 미백용 화장품 원료, 전립선 비대증 예방 및 치료 등의 약용으로도 두루 사용된다. 중국에서는 모새나무 잎을 활용해 자색밥이나 모새잎 떡을 만들기도 한다. 이번에 발견된 신안군의 모새나무 집단 군락지는 세계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신안군은 군락지의 구체적인 위치는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로 하고 지속적 연구를 통해 수령과 생태적 중요성에 대해 깊이 있게 규명할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2007년 전남 진도군에서 발견된 수고 5m, 직경 15㎝의 모새나무의 크기보다 훨씬 뛰어넘는 세계 최대 직경을 자랑하는 모새나무 군락지가 신안군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뜻깊다"면서 "분포 실태조사를 통해 추가적 군락지를 확인하고 천연기념물 또는 보호종 지정을 위해 보전에 심혈을 기울이겠다"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 모새나무

진달래과에 속하는 상록 활엽 관목으로, 주로 한국, 중국, 일본 등 동아시아 해안 지역에 분포한다. 우리나라는 주로 서남해안 지역인 신안, 목포, 해남, 진도, 제주도 등에 자생하며, 6~7월에 흰색 또는 분홍색 꽃을 피우고 10월에 검은색 열매가 열린다.

완도전통시장 '야(夜)금야금 주말 야시장'

19~20일·11월 1~2일 열려

완도전통시장에서 19일부터 '야(夜)금야금 한상' 주말 야시장이 열린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 군민과 관광객에게 즐길거리 및 먹거리를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19~20일, 11월 1~2일 등 총 4회에 걸쳐 오후 6시부터 9시까지 이어진다. 기존 판매 상품 이외에 상인들이 자체 개발한 메뉴를 직접 선보인다. 지역 예술인이 참여하는 공연과 즉석 노래자랑, 댄스 대회, 이벤트 등을 통해 주민과 상인, 관광객이 한데 어우러지는 시간도 마련됐다.

지난해 '가을밤 행복 충전 야시장(총 4회)'에는 총 1500여 명이 찾는 등 호응을 얻었다.

올해도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과 먹거리, 볼거리 등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사로잡을 계획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완도전통시장이 5일장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주민, 상인, 관광객이 찾는 특색있고 활기찬 시장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완도군,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 3년 연속 선정

완도군이 최근 산림청이 주관하는 '2025년도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공모사업'에 3년 연속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군외면 원동 버스터미널 일원(1.2㏊)으로 기후대응기금을 포함한 사업비 12억원을 확보했다.

완도군은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상반기 원동지구에 3.4㏊ 규모의 도시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도시숲에는 지역 자생 난대수종으로 탄소 흡수율과 산소 발생량이 많은 완도호랑가시나무, 황칠나무, 붉가시나무 등을 중점적으로 심을 계획이다.

완도군은 올해 미세먼지 확산을 막고 도시 열섬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원동 교차로 일원 유휴지(2.2㏊)에 지역 특산 난대수종 21종, 7만8000그루를 심었다.

이와 연계해 기후대응 도시숲 공모사업도 추진된다.

박은재 완도군 산림휴양과장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71만t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완도는 전국적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지역에 속하지만 지구온난화로 인한 이상기후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도시숲이 산소 탱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영암군 '日히라카타 왕인묘전' 참배단 파견

내달 1~4일…지역축제 협약도

영암군이 다음 달 1~4일 일본 우호교류도시 히라카타에서 열리는 오사카 일한친선협회 주관 왕인묘전제에 참배단을 파견한다.

영암군과 히라카타시는 1990년부터 인연을 맺어왔다. 왕인박사 춘향제에는 일본 방문단이 영암을 찾고 묘전제에는 한국 참배단이 히라카타를 방문하는 방식으로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영암 참배단에는 왕인박사의 정신을 계승할 영암 청소년들도 '왕인의 후예'로 동행한다.

영암 참배단의 일정에는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아 오사카시 왓소축제와 업무협약 체결 시간도 예정돼 있다. 고대 아시아의 국제교류를 기념하는 왓소축제의 '왓소'는 우리말 '왔소이다'에서 유래됐다는 설이 있다.

백제시대부터 한반도에서 온 빈객을 반기는 의미가 담겨 있는 이 축제는 매년 오사카성 가까운 시텐노지에서 열린다.

한국 참배단은 일본 문화시설의 테마견학에도 나설 예정이다. 오사카시 나카노시마 아동도서관을 찾아 영암 아동 문학공간 조성, 교토시 전통 정원에서는 영암 녹지조성 계획을 모색할 예정이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얘들아 아침 먹자" 해남군 삼식이 캠페인

해남군이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달 22~31일 '아침 먹자~자랑스런 삼식이' 캠페인을 한다.

학생들의 아침 결식률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아침 식사가 건강한 성장과 학습효과 증진을 위해 꼭 필요함을 알리기 위해서다.

아침밥 먹고 하루 세끼(삼식)를 챙기는 건강한 습관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전개한다.

식습관 변화로 인해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요즘 일상 속 작은 실천을 통해 농촌을 지키고, 쌀 소비 촉진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캠페인 참여 방법은 해남군 카카오채널 '아침먹고 땡!' 가입 후 기간 내 아침밥 먹는 사진을 5회 이상 인증하면 된다.

인증에 성공하면 보건소에서 준비한 소정의 기념품도 준다.

해남군 관계자는 "아침 식사를 통해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영양 불균형을 해소함으로써 체중 개선의 효과를 얻을 수 있고 집중력과 기억력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

무안군, 탄도만 해역에 낙지 1만 마리 방류

연말까지 1만 2천미 추가 방류

무안군이 지난 15일 낙지자원 증대를 위해 탄도만 해역에 어린 낙지 1만 마리를 방류했다. 〈사진〉

방류한 낙지는 전남도 해양수산과학원 자원조성연구소에서 지난 4월부터 성숙한 어미 낙지를 확보해 먹이 공급, 수온 조절 등 안정적 관리를 통해 부화시켰으며, 방류를 위해 무안군에 무상으로 지원했다.

무안군은 낙지자원 조성을 위해 금어기(6~7월)에 맞춰 약 2만 6천미의 어미낙지와 교접낙지를 방류했고, 연말까지 추가로 1만 2천미의 낙지를 방류할 예정이다.

나재철 무안군 해양수산과장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낙지는 어업인의 주요 소득원이 되는 중요한 수산물로써 이번 방류를 통해 수산자원 조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오는 26일과 27일 개최되는 무안갯벌낙지축제에서 신선한 제철 낙지를 합리적인 가격에 맛볼 수 있으니 많은 방문 바란다"고 말했다.

/무안=김민준 기자 jun@

목포시 대조기 바닷물 수위 상승 대비 당부

18~20일 오후 2시~5시

목포시가 18일부터 20일 오후 사이 바닷물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대비를 당부했다.

목포시는 대조기인 18일부터 20일 오후 2시~5시 사이 바닷물 수위가 5.0m 이상 (조석표상 10/19 최고 5.14m)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비상근무반을 편성하고 조위 상승에 따른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배수펌프장, 배수갑문, 수문에 대해 사전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안 저지대에는 현지 예찰활동을 강화하여 침수피해 예방에 적극 대처하고 있다.

특히 침수 경계 지역인 해안저지대에는 차량 주·정차로 인한 침수 피해가 예상되므로 저지대 차량 주차는 금지할 것을 당부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바닷물 수위가 4.90m이상일 경우 해수 위험일로 지정해 시민들의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며 "바닷물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 만큼 침수피해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여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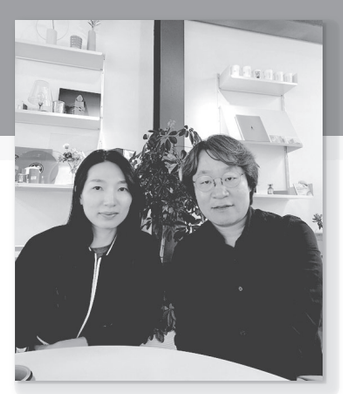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련다/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련다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아느냐/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련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이호동(오른쪽)·박소영 부부 교사 ▲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북스